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자

회개

2024 북한회복을 위한 속회·구역공과



2024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 · 구역공과

공과안내

1과 북한 동포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	3
2과 잃어버린 소금의 맛 -----	12
3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	21
4과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창조 -----	29

공과안내

* 공과안내

공과마다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제목과 말씀은 그 주제에 맞추어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관련 찬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입은 그 주제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과 간단한 나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말씀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삶의 자리에서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의 찬양 : 주제와 관련된 찬양을 부르며 마음을 엽니다.

공과를 여는 질문 : 간단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본문 나누기 : 성경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 속으로 : 주제에 맞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통일을 기대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삶 속으로 : 말씀과 주제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 한반도의 복음통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1과

북한 동포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지도자를 위한 1과 안내

1과 목표는 성도들이 복음통일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녘 동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한 것과 대한민국에 있는 3만 4천 탈북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정착하며 겪는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찬양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찬송가 539장)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 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2.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네 마른 목 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듣기





공과를 여는 질문

북한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지금은 ‘역’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원래 무슨 역이었을까요? 함께 나눠보세요.



<지도사용>

북한의 지하철 노선도에는 천리마선 승리역과 개선역 사이의 역이 통일역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통일’이 삭제되어 ‘역’만 남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 ‘민족’ 등의 용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북한 공식 무역·투자 전용 사이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서는 한반도 이미지를 포함한 세계 지도 그림이 지워졌고, 외국문출판사가 운영하는 ‘조선의 출판물’ 사이트 첫 페이지에 있던 한반도 이미지도 최근 삭제되었습니다.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는 날씨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전체가 표시되어 있던 기존 배경 이미지 대신 북한 지역만 확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는 ‘삼천리’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점점 통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통일에 무관심하진 않나요?



본문 나누기

사도행전 2:37-42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 나 더하 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속으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청중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성결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신앙 고백적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온전한 연합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복음통일 공동체를 오늘 꿈꿉니다. 그 언젠가 북녘 동포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자유롭게 예배하게 될 것을 꿈꿉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오랜 눈물을 닦아줄 그 모습을 꿈꿉니다. 그 때가 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날이 오도록 당신을 기억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노라고.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회개’와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행 8:17).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북녘 동포를 향한 기도가 일어나도록, 탈북민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것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사는 동포에게, 중국과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속으로

회개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한 베드로도 훗날 로마에 가서 사역할 때에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퀴바디스」 작품에 보면, 박해 시대에 로마를 도망쳐 떠나는 베드로가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은 정작 베드로가 떠난 로마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방향과 주님이 가시는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퀴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 이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로마로 간다.” “베드로야, 네가 떠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부활 후에 갈릴리로 찾아오신 주님과 만나 대화를 나눴던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17)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세 번 당부하셨던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던 길에서 돌아섭니다.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방향이 주님이 가시는 방향과 같아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베드로의 마음도 맞춰졌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들을 향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지수가 높은 북녘 땅에서 살아가는 2천 6백만 어린 양들이 아파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어린 양들이 아파하는 곳을 향합니다.



말씀 속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고통 받는 어린 양이 있는 북녘 땅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한 그 어두운 북녘 땅을 탈출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3만 4천명의 탈북민을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아가 탈북민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 개척하여 세운 50여 개의 탈북민 교회를 기억합니다. 이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교회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삶 속으로

1. 2023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통일에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비율이 56%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은 ‘통일 폐기’로 가고 남한은 ‘통일 회피’로 빠르게 갑니다. 우리는 ‘통일 폐기’와 ‘통일 회피’에 대해서 왜 회개해야 할까요?

<지도자용>

‘통일 폐기’와 ‘통일 회피’는 서로를 배제(exclusion)하는 죄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다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새롭게 깨우고 회복해가기를 소망합니다.

2.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도자용>

관심(關心)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북한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해 봅시다.

3.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과 장소는 어디일까요? 혹시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나요?

<지도자용>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하거나 소외된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고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더 기도합니다.

1.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2. 우리 곁에 보내주신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3. 북한 동포와 탈북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편견과 적대감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4.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에게도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5. 동서남북에 흩어진 탈북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한반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과

잃어버린 소금의 맛



지도자를 위한 2과 안내

2과 목표는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이 팽배한 지금, 소금이 고유의 짠맛이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인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갈등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의 길에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 : 눈을 들어 하늘 보라(찬송가 515장)

1.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2.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3.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4.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애하신 우리구주 의의 심판 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찬송가 듣기





공과를 여는 질문

2023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물어보는 질문에 30%가 ‘필요하지 않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래는 통일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이유에 대해 2018~2023년의 설문을 종합한 것입니다. 가장 높게 응답한 답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2	17.9	21.1	21.3	21.5	20.0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7	12.7	13.4	16.3	20.1	13.3
?	35.2	38.8	34.8	32.1	34.1	33.9
?	26.8	25.4	27.6	26.7	20.3	28.7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5	4.6	2.6	3.3	4.0	4.1
기타/무응답	0.7	0.5	0.6	0.5	0.1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2023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지도자용>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고 만난 통일은 큰 갈등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목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들을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복음통일에서 소금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5.2	38.8	34.8	32.1	34.1	33.9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6.8	25.4	27.6	26.7	20.3	28.7



본문 나누기

마가복음 9:47-50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 속으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선적 배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을 머리로 삼아 새롭게 연합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소금에 비유하십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갈등과 다툼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는 화목의 중재자가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갈등에 편승하여 반목의 공범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갈등에 편승하기보다는 그 갈등 가운데 참된 화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교회는 지도자 히틀러의 통치이념에 순응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반목의 공모(complicity)자가 됩니다. 그 결과 독일교회는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빠트린 전쟁 중에 세계 교회와도 반목하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의 교회도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갈등을 매개하는 화해의 중재자가 아닌 반목의 공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모든 영역에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 계층, 신념으로 나누어진 채 갈등이 지속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갈등의 한편에 서서 스스로 '신앙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등을 화목으로 전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으로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17-20).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반목의 공범자에서 돌아서서 화목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온갖 언사로 적극적 공세를 펼칠 때도 그리스도인은 쉽게 남남갈등의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깨어진 관계를 잇고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신앙과 남북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무작정 세상과 거리를 두면 정세에 무지해집니다. 또 너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혼합될 위험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역사 위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 지도자의 공격적 언설이 가지는 의미를 면밀히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갈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산재한 다툼을 화목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삶 속으로

1.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갈등을 화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용>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반목의 공범자에서 돌아서서 화목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온갖 언사로 적극적 공세를 펼칠 때도 그리스도인은 쉽게 남남갈등의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깨어진 관계를 잇고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오늘날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도자용>

그리스도인은 세상 역사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 지도자의 공격적 언설이 가지는 의미를 면밀히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갈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산재한 다툼을 화목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 최근에 나의 삶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지도자용>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더 기도합니다.

1. 북한의 지도층을 잘못된 판단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2. 분단으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 남남갈등이 고조되지 않게 하시며, 그러한 갈등 가운데 교회가 편승하지 않게 하옵소서.
3. 한반도의 분단과 남남갈등을 더욱 확대하는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4. 세상의 신념과 문화와 이념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깊이 연합되게 하옵소서.
5. 우리에게 갈등의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목을 이루고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3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지도자를 위한 3과 안내

3과 목표는 우리 편은 무조건 순수하고 상대방은 불의하다는 거짓되고 조작된 순수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따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증오와 분열의 시대 속에서도 남의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다짐합니다.



오늘의 찬양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찬송가 268장)

1.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iero다
2.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iero다
3. 눈보다 더히게 말하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하시니
참 놀라운 능력iero다
4.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iero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듣기





공과를 여는 질문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 특정 생각, 표현 방식, 제품 등이 그 사회에 침투하거나 확산해 나가는 것을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또한 요즘 북한에 유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나누어 보고 아래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 출처 : 유튜브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76fRybav_HA

<지도자용>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외부 세력인 남한을 경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상만을 주민들에게 세뇌하려 합니다. 자신들만이 ‘순수’하며 남한의 것은 ‘불결’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조작된 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숨깁니다. 현실을 조작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이들이 가진 고귀한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현실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는 날씨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전체가 표시되어 있던 기존 배경 이미지 대신 북한 지역만 확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는 ‘삼천리’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점점 통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통일에 무관심하진 않나요?



본문 나누기

요한1서 1:5-10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지니와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 속으로

오늘 말씀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과시하는 이들을 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영적 지식인 영지(Gnosis)를 얻으면, 육체적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자세는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갈등 상황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세상 어디에서나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악하고 추한 존재로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죄없이 순결하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은 스스로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순수의 조작’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늘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을 분별하시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날에는 겟세마네에서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말씀 속으로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눅 22:39-46)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기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으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남한을 악한 존재로 간주합니다. 남한과 연결된 동맹국을 모두 적대적이고 악한 세력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의 순수성을 주민들에게 세뇌하고, 남한 문화를 불결한 것으로 여기게끔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요일 1:8). 북한이 진리 앞에서 진정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 앞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한도 스스로 완전하고 순수하다는 자만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으로

1.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갈등 상황은 항상 다가옵니다. 그럴 때 내 기준만 내세우고 상대방을 악하고 추한 존재로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합리화한 적이 있나요?

<지도자용>

합리화하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며 사랑과 겸손, 희생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2. 많은 관계 속에서 나 또는 우리 편은 무조건 순수하고 상대방은 불의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용>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늘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을 분별하시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도자용>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더 기도합니다.

1. 자기 자신들만이 순수하고 옳다고 믿는 북한 당국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자기기만에 빠진 북한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2.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넓은 세상을 배우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을 아는 통일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3. 남한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한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4. 남한과 해외 한인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5. 우리 안의 미움의 죄를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4과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창조



지도자를 위한 4과 안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게 하시고 새 자아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4과 목표는 이처럼 복음을 통해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 :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찬송가 265장)

1.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2.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3.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죄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4.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후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때에
내가 너를 넘어 가리라

찬송가 듣기





공과를 여는 질문

만약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로 북한이탈주민이 새롭게 온다면 어떨까요? 함께 나눠보고 아래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 출처 : 유튜브 통일부UNITV
(<https://www.youtube.com/@mounikorea>)

<지도자용>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통일이 되도록 함께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본문 나누기

갈라디아서 2:11 - 20

-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 12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
혹되었느니라
-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
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
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
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
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 속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선언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는 이제껏 그를 얽매고 있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고후5:17)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얽매어 있던 옛 자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과거 바울의 모습은 분단에 얽매인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옛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은 것처럼 우리 민족도 분단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 된 국가를 이루기를 간구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바울 안에 거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5).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는 고백처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 자아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고후 5:18).

우리는 남북한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오랜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가시는 통일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 속으로

또한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는 자신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단에서 벗어나 통일된 국가가 되게 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빛나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의 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새 자아를 창조해주셔서 우리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분단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국가의 미래를 창조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삶 속으로

1.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그 극복한 경우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지도자용>

소그룹에서 돌아가며 간단하게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진솔하게 나누되 서로경청하며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은 보다 간단히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2. 바울이 옛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은 것처럼 우리 민족이 분단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 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지도자용>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24년 2월 8일에 열린 건군절 76주년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평의 주적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의 북한 정권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90년 11월 30일 「노동신문」에서 “일부 경제교류나 제한된 사람들의 내왕이나 하자는 것은 현재의 분열 상태를 유지한 채 꺾렁꺾렁 살아가자는 것으로 두 개조선 조작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이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폐기한다는 선언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유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역사와 교과서뿐 아니라 통일 관련 상징물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통일과 민족 개념이 주입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도 재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 일수록 통일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 간의 화해를 통해 한반도에 세워질 새로운 통일국가를 꿈꾸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더 기도합니다.

1.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북한 지도자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2. 자유통일의 의지를 붙들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지혜를 주셔서 분단을 통일로 전환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3. 식어가는 통일의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손을 잡게 하소서.
4. 한국교회가 민족의 분단을 통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담아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5. 속히 통일되어서 2천 6백만 북한 주민과 5천만 남한 주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소서.

2024
북한회복을 위한 속회·구역공과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창의관 404호
☎ 02-828-7076 📧 ccul@ssu.ac.kr

